

이동수단(모빌리티) 분야 규제 유예제도(샌드박스) 도입 등 산업 현장 규제애로 해소

- 배추·무 할인지원 및 정부공급 확대, 사과 1.5만톤 신속 출하 등 서민물가 안정 총력 지원
-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핵심기술 확보 및 민간부문 서비스 개발 중점 지원

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.5(목) 08: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①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, ②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, ③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했습니다.

* 경제부총리(주재), 행안·문체·농림·산업·환경·고용·해수·중소부, 국조실, 공정위, 통계청 등 장치관 참석

추 부총리는 먼저,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어, 한층 더 높은 경계심을 갖고 시장 점검(모니터링)을 강화하는 한편, 역외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투기적 거래로 외환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 등도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올해 물가는 전반적인 둔화 흐름 속에, 국제유가 큰 폭 상승 등으로 8~9월 두달 연속 3%대를 기록하였지만, 계절적 요인이 완화되는 10월부터는 점차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.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, 배추·무 할인지원 및 정부공급 확대, 사과 계약재배 물량 1.5만톤 신속 출하 등 서민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

한편, 실물경제의 경우 생산·수출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이 확대되는 모습이나, 고금리 장기화, 주요국 경기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,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.

특히, 이차전지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 신설, 이동수단(모빌리티) 분야 규제 유예제도(샌드박스) 도입 등 첨단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규제·애로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아울러,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에서 2027년까지 자율운항 등 42개 핵심기술 확보와 선박 탄소배출량 저감 서비스 등 39개 민간부문 서비스 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.

- ※ (별첨) 1. 경제부총리 모두발언
 2.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
 3.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

< 총 괄 >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	책임자	과 장	박재진 (044-215-4510)
		담당자	사무관	황인환 (044-215-4513)

< 안건별 담당자 >

[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]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장보현 (044-215-2770)
		담당자	사무관	최봉석 (044-215-2771)
	통계청 물가동향과	책임자	과 장	백지선 (042-481-2530)
		담당자	사무관	유달순 (042-481-2531)
	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	책임자	과 장	유원상 (044-201-2231)
		담당자	사무관	남기현 (044-201-2234)
	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	책임자	과 장	김대일 (044-203-5220)
		담당자	사무관	김만식 (044-203-5223)

[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]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규제혁신팀	책임자	팀 장	이재화 (044-215-4581)
		담당자	사무관	박지원 (044-215-4585)

[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]

담당 부서	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	책임자	팀 장	권순태 (044-200-6141)
		담당자	사무관	이삼준 (044-200-6142)
	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임혜영 (044-215-4550)
		담당자	사무관	심민준 (044-215-4553)